

# 發刊辭

學術委員長 蘇 秉 昌



學術委員長職을 맡은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2年이란 歲月이 지났습니다.

大韓韓藥 5號誌에 이어 새로이 6號誌를 냅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글을 보내주신 投稿 會員여러분께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生命을 다루는 所重한 學問을 研究한다거나 民族文化의 資產을 發展시키는 우리들의 이러한 작업은 비록 그것이 당장 金帛에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그 價値를 擴大해가는 契機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信念이 確固합니다. 韓藥의 專門家로서 자기가 얻은 理論이나 經驗을 그대로 看過하지 않고 記錄으로 남기는 것은 死藏이 될 價値를 살려내는 일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社會로부터 많은 惠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業을 保障 받는다거나 그것으로 일을 얻어 生計를 꾸려가는 자체가 惠澤입니다. 社會的인 寄與가 必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學術事業을 통해 무엇인가 社會에, 歷史에 報答을 해야합니다 「東醫驗方新纂」이라든가 增補版과 같은 結果로 얻어낸 것도 그러한 우리들의 信念과 努力의 結果입니다.

모든 會員이 學術에 대한 더 많은 關心을 가져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今年에는 사정상 出刊이 늦어져 會員들로부터 叱責의 電話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來年에는 반드시 제때에 더 알찬 책을 내겠습니다. 많은 參與를 거듭 바랍니다.

2002年 6月